



“새마을 기술봉사단”을 활용하자

1. “새마을 운동”은 정신혁명 운동이다.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에게는 스스로 돋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불유쾌한 유산인 가난을 항상 조상의 탓으로만 돌리고 체념하는 태도를 되풀이 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에게는 자립, 자조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굳건한 자세로 피땀 흘리는 노력 보다는 가만히 앉아 남의 도움을 바라는 안일을 택해 왔습니다. 그리므로 우리는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의 욕된 유산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자립, 자조하는 정신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개으름에 젖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의욕과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무엇보다도 할 의사와 의욕이 앞서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할 의사와 의욕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은 “새마을 운동”的 기본이 됩니다.

이런 정신혁명을 꾀하는 움직임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썩터, 온 마을 온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하는 협동정신이 있어야만 개인이 잘 살게 되고 마을이 잘 살게 되며,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불리 일으키는 정신혁명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혁명 운동은 농어촌만의 운동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운동입니다. 농촌이나 도시, 농민, 상인, 공업인, 회사원, 교원; 공무원, 군인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야 할 범국민적인 정신혁명 운동입니다.

2. “새마을 운동”은 생활혁명 운동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도 안일한 생활에 젖어 온 채, 뜻 없는 나날을 보내 왔습니다. 즉 어제와 오늘이 아무 다를 것이 없는 생활을 오히려 당연한 것 같이 느끼며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악습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우리도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우렁찬 구호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

진지도 이미 오릅니다.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의 성의 있는 뒷받침으로 그 열매가 알차게 여물고 있습니다.

없던 길이 새로 트이고, 비좁던 길이 넓어 졌으며, 없던 다리가 생겼고, 초가지붕이 개량지붕으로, 도량이 하수구로 변했으며 마을에는 새로 공동목욕탕, 공동우물, 마을회관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주의를 정리, 정돈하여야만 정신이 들고, 일도 잘 되는 법입니다. 이 일들은 그런 뜻에서 우선 주위의 생활환경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생활환경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뜻에서도 생활환경의 정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생활환경의 정리는 건강 유지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값 비싼 것으로 꾸몄다고 반드시 좋은 생활환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생활환경이란 모든 일이 잘 정돈되고 위생적이어서 건강에 좋고, 기분을 상쾌하게 또한 명랑하게 하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생활 환경만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운동입니다.

점, 굿, 사주, 관상에서부터 미신에 가까운 민간요법에 이르기까지 비과학적인 것을 우리의 생활에서 추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의·식·주에 근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함으로써 비위생적인 것을 위생적으로, 불편한 것은 편리하게 개선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은 것은 더욱 능률이 오르도록,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생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할 일 없이 빙동거리는 행동은 부지런한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생활혁명 운동인 것입니다.

3. “새마을 운동”은 소득증대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남 보기에 그럴싸하게 길이나 닦고, 다리를 놓고, 보기 싫은 초가지붕이나 뜯어고치는 걸치래를 위해서 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的 최종 목표는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잘 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은 결국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운동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증대하면 지금 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소득증대는 일도 많이 하지만 생산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수확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하는 시간이 절약되고, 절약된 시간은 다른 돈벌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노동력을 절약하고 많은 일을 부지런히 하여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맛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 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남들과 같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오락도 즐길 수 있고. 관광여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어촌은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이 적었으니 자연히 일할 의욕을 잃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망설이기만 하다가 하는 일 없이 날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도시에 몰려 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립, 자조, 협동 정신으로 뭉쳐 한 마을이 놀랄만한 소득증대를 보는 고장이 우리 이웃에 많이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지 않거나 알면서도 어떻게 할바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근본입니다. 정부도 소득증대 사업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이미 결정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꽤 많습니다. 잡업, 양송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콩, 육성우, 미역, 밤나무 등 한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예, 공예품, 양어, 판상수제배, 죽제공, 목공, 토끼기르기, 양계, 특용작물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4. “생활혁명”에는 과학 기술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길을 밟는 일, 지붕을 개량하는 일, 우물을 파는 일 등등의 모든 “새마을 운동” 사업이 무턱대고 노력만으로 바라는 성과를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지붕 개량을 할 때는,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가장 값싸고,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고, 또한 어떻게 개량하는 것이 힘이 덜 들고, 보기도 좋고, 편리한가? 우물은 어디에 어떻게 파야 힘을 덜 들이고 위생적이고 쓰기에도 편리한가? 이러한 문제들은 쉽고도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인 것입니다.

한편 건강은 모든 활동의 원동력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 위생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어 건강을 해치는 수가 많고, 병을 미신으로 고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때로는 약을 제멋대로 써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대의 과학 기술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용하여 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못 살아온 이유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우리들 일상생활에 잘 이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내려온 생활양식만 알고 일진월보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등한 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환경에서 문명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잘 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로지 발달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 잘 이용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과학기술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개선하여 합리화하고,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개선하는데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잘 이용 할수록 생활은 더욱 개선되어 편리해지고 위생적이 됩니다.

잘 사는 나라처럼 과학기술을 생활면에 잘 이용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과학기술을 생활에 활용하여 생활을 과학화하여 여러분의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그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5. “소득증대”에는 과학 기술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의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날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상 전래의 생산방법이나, 그 일에 관해서 남으로부터 들었다는 정도의 지식만으로는 소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령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지방의 토질이나 기후에 알맞아야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품종이 그 지방의 토질이나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검사도 해보고 실험도 해 봐야 합니다.

경작방법, 시비방법, 식물성장 “홀몬” 사용, 병충해 예방, 기타 관리방법 등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에 따라서는 수확량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고기잡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롭고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기잡이 방법이 잘못 되었거나 장소를 잘 선택하지 못한다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도 고기잡이 하는데도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科學과 技術

옛날에는 농사짓는데 공부나 학문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도 고기잡이 하는 데도 나무를 심는 데도 그밖에 생산사업을 하는 데도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과학적 지식을 무시하거나, 기술을 모르고 있으면 애써 일해도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힘을 기울여 애써 시작한 생산사업이 그에 관한 지식과 그것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거나 혹은 그것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하던 일이 하루 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읍니다.

애써 가꿔 놓은 밤나무가 원인 모르게 시들어갈 때나, 정성들여 길러 놓은 털이 보람도 없이 죽어갈 때의 쓰라린 짐정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은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여러 분 . 생업에 이용한다면 놀랄만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읍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과 같이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이용한다면 농가소득은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개량된 농기구나 농업용 기계를 살 수 있다면 농업을 기계화 하여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읍니다.

농사시간의 절약은 다른 부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읍니다. 이때가 오면 선진국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的 목표이며 미래상입니다.

그런데 여가나 시간을 내서 하는 부업이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수입이 본업인 농업이나 어업에서 얻는 수입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부업에 손을 냈다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거나 관리가 잘못 되었거나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업으로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손해 본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좋고 싼 물건이 왜 안팔립니까? 쓸모없는 물건이거나 질이 나쁘거나 모양이 없거나, 값이 비싸거나 하기 때문에 안팔리는 것입니다.

다른 고장에서 잘 되는 부업이 우리 고장에서는 여러가지 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될 때도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술을 익혀야 하고, 그 고장 실정에 맞는 부업을 선택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부업선택에도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소득증대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농업, 어업, 임업, 낙농, 경제작물, 그 밖에 수 없이 많은 부업등에 새로운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는 데 있읍니다.

우선 부업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 무엇이든 돈이 생

기는 일이라면 하여야 합니다.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6. “새마을 기술봉사단” 창립취지

“새마을 운동”은 범국민적인 운동입니다. 비록 이 운동이 농어촌의 농어민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했으나 도시의 지식인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 과학기술인은 조국근대화의 대열에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에 계시는 여러분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새마을 기술봉사단”을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기해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새마을 기술봉사단”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순수한 봉사단입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낡은 생활 양식과 생산방법을 일진월보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준수하여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양식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소득도 과히 늘지 않았고, 항상 가난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의 딱한 생활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고 총 결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산이나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알고파 한다면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그 지식과 기술을 아르쳐 드릴 수 있읍니다.

한편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혹은 소홀히 하기 쉬운 과학기술상의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리려 합니다.

우리 “새마을 기술봉사단”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 6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마을 기술봉사단”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과학 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충분한 두뇌들을 갖추고 있는 셈이 됩니다.

7. “새마을 기술봉사단”이 하는 일

(1) 여러분의 소득증대를 돋겠습니다.

“새마을 기술봉사단”은 여러분의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서 어떠한 기술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가르쳐 드릴 수 있읍니다.

(2) 여러분의 생활수준 향상을 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를 잘 쓰면 돈이 적어도 그나름대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읍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여러분의 생활에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보다 편리해지고, 생활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보다 위

